

“전북 강소기업 육성 충분한 시간·특화 전략 필요”

전북도민일보

비전창조 아카데미



제4기-CVO과정

제 24강 : 채수찬 한국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저는 ‘100’이란 숫자와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주 풍납초를 나왔는데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고, 고등학교도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풍납초 총동창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학자의 길을 걷다 ‘가지 않은 길을 좋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대외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KAIST에서 자산운용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매일 결재하는 금액이 100억원입니다. 앞으로 강의는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민일보 2019년도 제4기 CVO 비전창조 아카데미 제24주차 강의가 지난달 28일 전북도민일보 6층 강당에서 채수찬 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을 초청 ‘전북 셀 시대,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전략’이란 주제로 열렸다.

채 교수는 ‘노벨상을 탔거나, 탈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전혀 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들며 강의를 열어나갔다.

그는 “전자의 경우는 수감을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명철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며, 후자는 잘난체하는 사람”이라며 “앞으로 서슴없이 질문하며, 답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건물에 입주해 있는 ‘KCRI 카이스트 지역혁신센터’에 대한 배경을 시작했다. 2017년 기준 전북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민간소비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혁신을 통해 전북지역의 강소기업을 육성 하자는 취지에서 이 센터가 설립됐다.

이 센터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비전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전북, 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통한 시장다각화 및 수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며, 목표는 대상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 전략수립, 효과적인 현지마케팅, 세일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미국 현지 위탁파트너와 현지 마케팅을 수행하고,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및 세일즈 전략 구체화, 기술평가에 이은 교육을 통한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등이다.

미국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채 부총장은 “세계 시장의 중심이며, 이곳에서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유럽, 아시아 등)으로의 진출은 ‘누워서 떡 먹기’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8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3년에 2개 기업 지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2014년에는 5개 기업, 2015년 6개 기업, 2016년 5개 기업, 2017년 5개 기업, 2018년 5개 기업, 올해 5개 기업에 대해 꾸준한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시작한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사업’은 4년간 13개 기업을 선정해



제4기 CVO 비전창조 아카데미 제24주차 강의가 지난달 28일 본보 6층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채수찬 KAIST 대외부총장이 ‘전북 셀 시대,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카이스트 지역혁신센터 맞춤형 글로벌 사업 역량 강화 등 지원

뛰어난 의료데이터·IT기술 보유 바이오·파머 기회요인 충분

지원하고 있다.

채 부총장은 “통상 1개 기업에 1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 특성상 4~5년 이상을 공들여야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시간의 중요성과 함께 특화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영어 능통, 비즈니스 경험, 전북·전주 거주’ 등 3요소를 갖춘 곳을 찾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에 걸친 꾸준한 지원으로 상당한 효과를 본 기업이 많다”고 했다.

‘KCRI 카이스트 지역혁신센터’에 대한 설명을 마친 그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바이오·파머(Bio-Pharma)’로도 불리는 이 사업 전략은 한마디로 ‘신약 개발’이다. 이 사업 전략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30년간 연 10% 이상의 성장률의 고도성장기였던 한국 경제가 1990년대를 발을 고비로 2000년대 중반 이후 5% 이하의 저성장기 기조로 변모하면서.

전자, 자동차, 화학, 조선 등 현재의 주요 산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견인하기 힘들다는 것도 깔려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보건산업에 대한 지출의 증가와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하루속히 ‘바이오·파머(Bio-Pharma)’ 사업을 전략 혁신사업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게 채 부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경우 바이오·파머의 기회요인이 충분하다. 그 이유는 고령화의 선두를 달리는 데다, 뛰어난 의료데이터와 IT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보건의료의 개혁 역량도 우수한 편”이라고 부연했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신약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약산업은 과학(발견) 기반의 비즈니스로, 느린 산업이며, 높은 R&D 비용과 위험도를 갖고, 제품의 보완성이 아주 낮다. 신약개발에 이르기까지 통상 1~2조원이 소요되고, 13년 이상이 걸린다고 그는 부연했다. 반면, 정보통신 산업은 공학기반의 비즈니스로, 빠른 산업이며, 중간 이하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으며, 단계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

한국의 바이오·파머 산업 역량에 대해 채 부총장은 “R&D, 생산, 유통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비즈니스인프라(창업, 투자, 기술이전 등 산업 생태계)와 정책인프라(장기적 전략 수립 및 실행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핵심전략으로 그는 “무엇보다 글로벌 제약사들과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파트너를 맺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R&D센터 유치, 임상센터 건립 등을 통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철 기자

제25강은 5일 오후 7시 전북도민일보 6층 대강당에서 ‘북한의 실상과 탈북 남한 정착기’를 주제로 한수연 탈북인 강사 초청 특강이 진행됩니다.

박형배·김원주 의원 ICT 산업발전 공로 감사패



박형배 의원



김원주 의원

전주시의회 박형배(효자 4·5동), 김원주(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이 최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전북 ICT융합발전포럼(회장 박광진)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북ICT융합발전포럼은 “박형배 의원과 김원주 의원이 그동안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특히 지역 ICT 산업발전과 관련 기업의 성장을 위해 힘써준 공로를 인정, ICT 산업인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형진 기자



전주자봉센터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봉사활동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서원노인복지관 분관에서 지역 어르신 300명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식사와 전문서비스 봉사활동 등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29일 408회 사랑의 희망열차는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 외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접했으며 이날 로사해어미용봉사단(단장 김연분)은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남형진 기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전북대회 시상식 개최

새마을문고전라북도지부(회장 정영대)가 주관하고 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책과 문화의 만남, 나눔의 즐거움, 행복한 문화공동체 실현’이라는 주제의 ‘대통령기 제39회 국민독서경진 전북대회 시상식’이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새마을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9월부터 시군별 예선대회를 거친 우수작품 400여편을 심사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 상장 등을 김제중 3학년 장상영 학생을 비롯해 40명의 단체 및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병희 기자

제2기 세계잼버리 서포터즈

위촉식서 적극 활동의지 다져

전북도와 사)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는 2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세계잼버리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잼버리 서포터즈 200여 명과 송하진 지사, 범도민지원위 김동수 이사장, 권혁 스카우트전북연맹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포터즈들은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2019년 세계잼버리 서포터즈 활동 성과보고와 서포터즈 교육, 향후 활동 안내 등이 진행됐다.

서포터즈들은 특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향한



전라북도과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도민의 마음을 담은 ‘잼버리 희망패슬’ 만들기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잼버리 서포터즈 활동의지를 다졌다.

도내 14개 시군 다양한 분야,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으로 구성된 세계잼버리 서포터즈는 2019년 한해 도내의 주요행사장 현장홍보, 세계잼버리 행

설정옥 기자

전북편집기자협회

송년의 밤 행사 성료

전북편집기자협회(회장 전오열 전북일보 편집1부장) 2019년 한마음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달 29일 열렸다.

이날 오후 완주군 용진면 한그루영농조합에서의 ‘편백 도마 만들기 체험’과 완주군 북향문화지구 ‘누에’ 견학 등을 실시한 전북지역 편집기자들은 전주시 송전동 한 음식점으로 이동해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 정동영 민주



평화당 대표,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위 부위원장, 이창익 전북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해 편집기자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편집기자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각 지회 단합에 공

이 큰 기자들에게 수여하는 ‘2019 올해의 전북편집기자상’은 전북일보 김동일 부장과 전북도민일보 강지영 차장, 전라일보 정효정 차장, 새전북신문 양용현 차장, 전북중앙 김원중 기자에게 영예가 돌아갔다.

강지영 기자

행사

▲전북 ‘연세동문 송년의 밤’ 행사 개최=5일 오후 6시 30분 세브 테라스(전주대 옆 서전주 콜로세움 아울렛 2층). ▲전주시유도유단자회(회장 김종상) 송년의 밤=16일 오후 6시 30분 전주 시청 옆 백송회관.

결혼

▲김민석 군(김용섭·주혜정씨 장남)·김지우 양(전북대 산학협력단 파견, 전 도의회 비서실장 김익수·농업기술원 김화정씨 장녀)=7일 오전 11시 30분 노보텔엠버서더 수원 샴페인 볼룸, 연락처:010-2776-5157.

▲박현수 군(전주교도소 교위 박기정·김경남씨 장남)·조윤영 양(새만금일보 편집국 부국장 조세형·김미숙씨 장녀)=7일 오전 11시 전주 알펜시아웨딩컨벤션센터 4층 알펜시아홀. ▲한경훈 군(한양수·경정희씨 장남)·이지영 양(이한표·이정심씨 장녀)=14일 오후 1시 30분 더케이웨딩홀 4층 오페라홀.



JTV전주방송 해외공동제작·유통 협력 MOU 체결

JTV전주방송(대표이사 김택곤)은 지난달 25일 아일랜드 공영방송 TG4, 영국 BBC ALBA, 제작사 Cwmni da, 북아일랜드 투자사 Northern Ireand Screen 등과 해외공동제작(프로그램명:‘데인스토리’) 및 유통 협력에 관한 MOU를 암스테르담 IDFA에서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 주관으로 체결했다.

이휘빈 기자



창해에탄을, 전주연탄은행 통해 난방연료·용품 전달

(주)창해에탄을(대표이사 이연희)은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을 통해 팔복동 관내 취약계층에 난방연료(연탄, 등유), 난방용품(난방매트 및 이불) 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장정철 기자

KT&G전북본부 소외계층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KT&G전북본부(본부장 조남웅)는 도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전주 금안노인 복지관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KT&G 전북본부 주관으로 KT&G 상 상유니브 대학생 자원봉사자,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 150여 명과 함께 김장김치 9천kg을 담가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900여세대에 전달했다.

장정철 기자

편집=최진영 기자